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⑩ 시대별 찻그릇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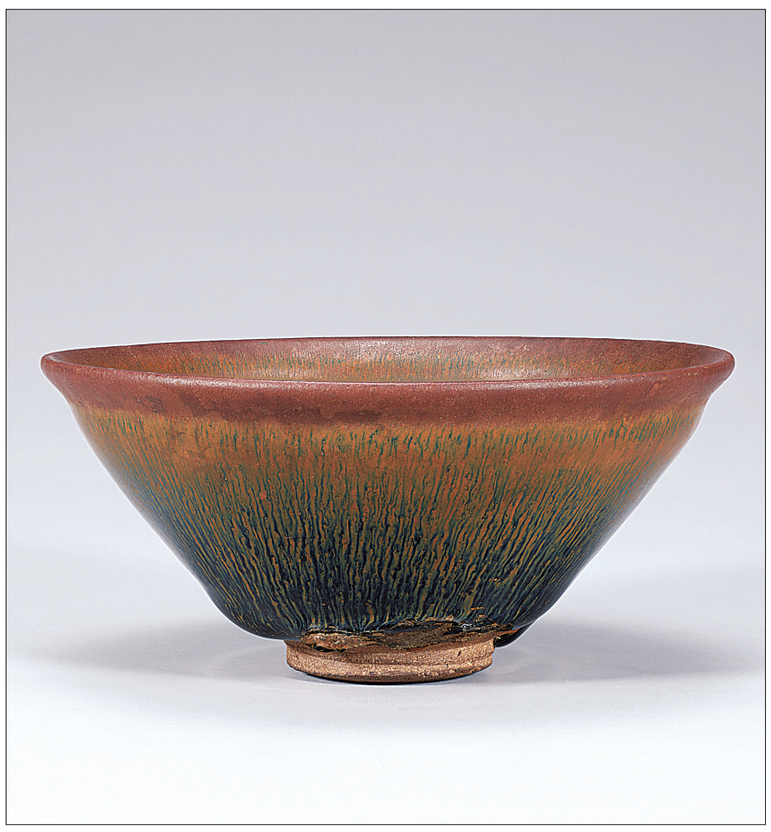
찻그릇, '차 담아냄의 미학' 정수

다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를 담아 마시는 찻그릇이다. 차를 위한 수많은 과정의 결과를 오롯이 담아내는 찻그릇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시대에 따라 여러 재질과 형태로 제작되며 변화해왔고, 그 시대 차 문화의 특징과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찻그릇은 도자, 금속, 유리에서부터 목제 칠기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열전도 측면에서나 차의 색, 향, 미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언 도자로 만든 것이었다.

좋은 찻그릇에 대한 고찰은 이미 당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월주(越州)의 청자 다완을 옥과 얼음에 빗대어 최고라 칭하였고 은과 눈처럼 새하얀 형주(邢州)의 백자 다완은 이에 못 미친다 하였다. 차를 푸른 청자 다완에 담으면 고운 녹빛을 띠지만 하얀 백자에 담게 되면 붉은빛이 돌아 고유의 차색을 해치니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 외에도 황색의 자기에 차를 담으면 자색이 돌고, 갈색의 자기에 담으면 차색이 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평하였다.

이어 육우는 월주의 다완은 '구연의 입술은 말려 있지 않으며 바닥은 얕은 권족(卷足)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그의 기록처럼 이 시기의 다완은 대개 깊이가 얕고 측면이 구연까지 완만한 사직선을 이루며 곧게 벌어지는 형태였다. 이는 완에 담긴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적절한 구조이다. 오늘날처럼 좁고 깊은 형태의 잔은 위에 뜬 거품이 먼저 입에 들어오고, 거품을 다 마시고 나야 아래의 차를 마실 수 있으니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당시에는 풍성한 거품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으므로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 좋은 형태의 다완을 고안한 것이다.

송대에는 차의 떫은맛을 없애고 여리고 순한 맛을 얻기 위해 갓 돋은 새순을 취하고 고를 짜내어 차를 만들었으니 엽록소가 적게 함유되어 하얀 빛을 띠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차의 하얀 빛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비감을 주는 검은 색의 다완을 선호했다.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徽宗)의 〈대관다론(大觀茶論)〉,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 등 송대의 여러 다서에서는 건요(建窯)의 흑유잔을 최고로 손꼽았다.



송나라 시기 만들어진 흑유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송대 흑유잔, 명청대 백자잔 선호
차 종류에 따라 찻그릇도 변화해

차색은 하얗기 때문에 마땅히 검은 잔(黑盞)이 좋다. 건안지역에서 만든 것은 감흑색에 문양은 가는 토끼털(兎毫)과 같고, 기벽이 약간 두툼하여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고 열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쓰기에 가장 좋다.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은 (기벽이) 얇거나, 자색이 돌아서 모두 (건안의 것에) 미치지 못한다.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중에서

채양은 이 기록에서 건안의 흑유잔이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차를 마시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논하고 있다. 건요의 흑유잔은 하얀 차색을 돋보이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뛰어났다. 잔의 두께가 두툼하여 잔 내부의 온기를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차가 빨리 식지 않도록 하면서도, 겉 표면은 지나치게 뜨겁지 않아 손으로 잡기에 편리했다. 또한 흑유잔은 당시의 음다(飮茶) 방식에 특화된 기형을 지니고 있었는데, 다완에 끓인 물과 찻가루를 넣고 다시(茶匙)나 다선(茶筅)으로 휘저어 거품을 내기에 유리하도록 기체가 깊어졌고 구연부에는 속구(束口)라 칭하는 오목한 홈을 둘러 격불(擊拂) 시 찻물이 넘치지 않도록 변화하였다.

반면 명·청대에는 백자 잔이 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찻그릇으로 애호되었다. 백자 찻그릇의 생산과 수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당대에는 월주의 청자에, 송대에는 건요의 흑유잔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덩이차(甁茶)를 담기에는 녹빛의 차색을 붉게 만들고, 단차(團茶)를 담기에는 백색의 차색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덩이차를 분말로 갈아서 풍성한 거품이 피어나도록 휘저어 마시는 당·송대와 달리 명·청대에는 제다(製茶)나 음다법(飮茶法)에서 전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백자가 최고의 찻그릇으로 선호될 수 있었다.

명·청대에는 찻잎을 그대로 말리고 덖어서 차를 만들고, 다관(茶罐)에 끓인 물을 부어 찻잎을 우려낸 후 찻잔에 따라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찻가루가 섞이지 않은 투명하고 맑은 차색을 감상하기에 새하얗고 깨끗한 백자가 가장 적합하였다. 명대 장원(張源)은 〈다록(茶錄)〉에서 다구로는 백자가 가장 좋다 하였고, 청대 초기에 편찬된 〈단궤총서(檀几叢書)〉에는 좋은 차를 가리는 품다(品茶)를 할 때 백자 찻그릇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백자 찻잔을 만들 때에는 구연부가 좁고 속이 깊어야 차색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향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려낸 차의 색과 향을 살리기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차를 마심에 있어서 차의 색, 향, 미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 찻잎을 따는 것에서부터 차를 마시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요소들을 깊이 연구하고 섬세하게 가려 택하였다. 때문에 찻그릇은 어떤 차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시대별로 그 재질과 색, 형태를 달리하며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좋은 찻그릇을 가리는 기준은 언제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의 본질과 아취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찻잔을 잡거나 입에 닿을 때 편안한 재질과 형태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교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⑳

1. 다음 말씀은 부처님께서 언제 설하신 것인가?

"아난다야, 잘 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① 탄생하셨을 때 ② 출가하셨을 때
③ 정각을 이루셨을 때 ④ 처음 설법을 하실 때 ⑤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해설 : 다음의 말씀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남기신 가르침(열반유훈)이다.

2.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 연표를 나열한 것이다. [보기]를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시다.
㉡ 수닷따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가 건립되다.
㉢ 사리불(사리뿟따), 목건련(마하목갈라나)이 입적하시다.
㉣ 마하빠자빠띠 등 여성이 출가하여 비구니 승가가 탄생되다.
㉤ 빔비사라왕이 죽림정사를 기증하시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해설 : 보기의 사건들은 모두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의 일들이다. 그럼으로 초전법륜이 가장 최초의 사건임으로 ㉠이 먼저 위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 최초의 사찰은 죽림정사임으로 기원정사는 그 이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은 ㉤에 위치하여야 한다. 여성의 출가와 두 큰 제자의 입적은 부처님 생애 후반의 사건들로 순서는 ㉣, ㉢이다. 앞의 ㉠, ㉡, ㉤의 사건들은 헷갈리지 않는 예임으로 먼저 그 순서를 배치하여 답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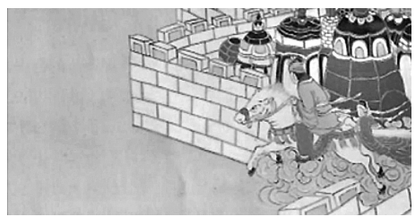
3. 다음은 불교의 전개 과정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가) B.C.E 589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성도(成道)
↓
(나) B.C.E 586년 수닷타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를 건립
↓
(다) B.C.E 584년 석가족과 콜리야족의 물싸움 해결
↓
(라) B.C.E 582년 친차 여인의 부처님 모함과 비방

① (가) - 깨달음의 핵심은 '무위자연의 도'이다.
② (나) - 부처님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다.
③ (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카필라국은 분단국가가 된다.
④ (라) - 이로 인해 부처님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간다.
⑤ (라) - 친차는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다니던 무서운 살인마였다.

해설 : '무위자연의 도'는 도교의 가르침이기에 불교와 관련이 없으며, 석가족의 나라가 카필라국임으로 콜리야족과 싸운다고 해서 카필라가 분단될 이유는 없다. 친자의 모함과 비방은 자연히 거짓임이 밝혀져 부처님께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을 죽여 손가락 목걸이를 만든 살인마의 이름은 앙굴리마라이다.

4. 다음은 '부처님 생애'의 한 장면이다.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랑하는 야쇼다라 공주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다.
② 노병사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다.
③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 가출을 하다.
④ 왕자로서 무예를 닦기 위해 말 타고 장애물 넘기 연습을 하다.
⑤ 왕궁생활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다.

해설 : 그림은 사문유관을 한 태자가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의 모습이다. 태자는 왕궁생활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였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⑤ 2. ④ 3. ② 4. ⑤

봉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축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
원 로 원 장 : 도불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오,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중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여암
문화국장: 광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경산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백산지견
감찰부장: 일봉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미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묵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해월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화광, 천산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예술문화협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구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이국철
수석부회장: 윤수경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최예원
부산신도회장: 손영만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경남신도회장: 송선근
신도회고문: 설주성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법무실장: 윤명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임병재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강남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3F (신사역8번출구) 02-511-1080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